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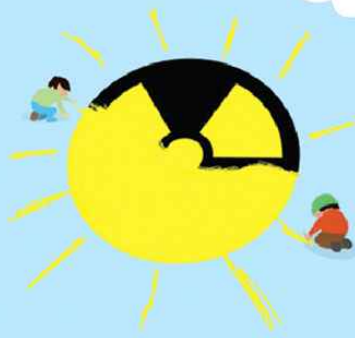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특검, 차 정신상태 조사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상당수 국민들은 여태 충격과 경악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있는 이상, 규명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탑승자 300명이 비명에 익사하던 순간에도 머리를 함으로써 사이코패스 수준의 낮은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 또 박근혜는 신경정신 계열의 약물을

다량 집중 사용해서 마약 중독 가능성을 내재한 사람이라는 점, 아울러 박근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살인교사를 해서 자기 5촌을 죽이려 했다는 점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박근혜의 지금 탄핵심판은 무의미해집니다. 기각이 된들 어떻게 저런 비정상 상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박근혜의 정신 상태를 탐문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 수사해 놓았는데 그래서 구속 수사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제야 정신 이상자라며 방어막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근혜도 사실이 그렇다면 이참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신병이라고 고백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취득했던 유무형의 부당 이득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감방에 갇히는 일은 피할 수 있겠지요. 이마저도 거역하고 외면한다면 그래서 국회의 탄핵사유, 검찰의 공동정범 최순실에 대한 기소내용을 부정하고 시간을 벌며 탄핵기각을 도모한다면 박근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권력은 안 되면 부인, 안 되면 조작, 안 되면 모략, 안 되면 버티기로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떠받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20일(화) 1부 | "우병우 이제 끝났다"...세월호 수사방해 확인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안 돼" 수사 압력 확인
- 박근혜, 세월호 전에도 뒤에도 '추기적' 흔적
- 정동춘 K재단 회의에서 "이완영 만나 재단 문제 부탁"
- '새누리 이만희-이완영, 국조 조작했으면 감옥 가야 한다'
- 강한 특검 "대통령 계좌 추적할 것"...직접 뇌물죄 검토 [뉴스듣기능력평가] "jtbc 회장 홍석현은 오늘날 사는가"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철레 한국 외교관 성추행 딱 걸러
- 트럼프 당선 못 돌이켜...투개표 부정 가능성은 1%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월 100만원도 안 쓰는 가구비율 7년 만에 최대
- 기독교 회사 이랜드, 일반 노동자 임금 83억 떼먹어
- [공화국 논평] 전권 달라는 배신자 유승민에 대한 중대조치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한겨레 우병우 “해경 서버 수색 말라”

2014년 6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상황실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당시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보이자 우병우는 검찰의 영장을 문제 삼고 세월호 검경합동 수사본부장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결국 당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겨레 이런 우병우, 직권남용 처벌 불가피

이어서 한겨레 관련 기사. 이번 일을 알고 있는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병우는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2015년 정기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라인이 거의 전멸했다. 세월호 수사를 맘대로 했으니 결과도 책임지라고 우병우가 말했다”

JTBC 세월호 전후로 박근혜 시술 확인

대통령 박근혜의 얼굴에는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도 그리고 참사 한 달 후에도 주기적으로 미용시술 흔적들이 나타났다. 참사 다음날 진도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입가에 멍자국이 보인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필러나 실리콘 주입 시술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에게 시술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최순실 단골병원의 김영재 원장이다.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고 밝혔는데, 진료기록 부상 서명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증교사 파문

중앙일보 정동춘, 친박 3인과 말 맞춘 의혹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지난 9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함께 만났다. 최교일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세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해있다. 또한 중앙일보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지난 4일 국정조사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재단 문제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간사는 이완영 의원이었다.

경향신문 “이완영 등, 사실이면 감옥 가야”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의 측근과 청문회 질문·응답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정황을 만들려던 것인데 이에대한 경향신문의 사설 소개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 세력이 국정조사마저 조작하고 방해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출당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두 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제명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국정조사 방해 행위로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

박근혜가 주범이다

SBS “차이 여명숙 해임 지시” 녹취 공개

여명숙 전 문화창조 융합 본부장은 임명된 지 두달도 안 돼 사퇴했다. 여명숙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해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SBS가 이를 입증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여명숙 전 본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반대를 하셨다” 여명숙 전 본부장은 전임자인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본부 운영에 대해 자신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구하자 해임됐다고 이야기한다.

김용민브리핑이완배기자의경제의속살
12월 29일 13시 전주 갈보리교회 19시 광주YMCA
사전예약 <https://goo.gl/YIDLmd>

SBS 특검, 박근혜 직접 뇌물죄 검토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은 물론이고 대통령 박근혜의 개인 계좌도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옷과 핸드백 값으로 냈다는 4천5백만원, 대리 처방을 통해 전달했다는 약값 등이 직접 뇌물죄의 실마리다. 또한 박근혜 계좌추적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촛불은 계속돼야

한국일보 차, 현재 심판 절차마다 어긋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근혜 법률대리인단이 최순실 재판의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한 점도 문제 삼는 등 재판의 모든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가 이번 사건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칼럼

한국일보 “세월호 수사 방해한 ‘검은 손’”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세월호 수사 방해한 ‘검은 손’”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은 사고 책임과 구조 책임으로 구분된다. 그 중 구조 실패의 책임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뿐 아니라 긴박한 순간에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한 정부에도 똑같이 지워져야 한다. 당시 책임자 처벌에 나선 검찰은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 수사를 포함해 모두 15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된 사람은 사실상 현장에 출동한 123경비정장 한 명에 불과했다.

당시의 구조 지휘체계는 123경비정에서 진도 해상관제센터, 목포해경, 서해해양경찰청, 해경본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청와대로 이어졌지만 가장 아래 위치한 소형 경비정 책임자만 문책을 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인명구조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와 영상 독촉에 골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자리에 없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에 전화를 걸어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없이 세월호 대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혀 있다. 광주지검 수사를 방해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다. 황교안, 김기춘, 이정현, 우병우가 수사 방해 관련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신속하게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관저에서 ‘올림머리’를 하지 않고 본관 집무실서 정위치만 하고 있었다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 규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문성근
12월 17일 오전 9:07

촛불 시민께,
조기 대선이 확정적입니다. 선거부정을 원천봉쇄할 투개표감시단 <시민의 눈>을 모집합니다.
전국 투표소 15,000개를 모두 감시하려면 6만명이 필요합니다.
회원 3만명이 넘으면 정당에 참관인단을 '시민 반+정당 반'으로 구성하자 제안합니다.
*가입처

eye.vving.org
가입하신 사이트를 체크한후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070-4916-2017로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YE.VVING.ORG



선거정의 실현하는
시민의 눈

<http://eye.vving.org>

역사는 미래다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의 외침-“역사의 교훈에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자.”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요즘,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책임입니다.

출판사 더봄